

# “쌀값 하락 막자”...전국 140개 농협 조합장 청와대 집회

### 쌀 30만t 시장격리 시행 촉구 국민청원 등장... 오늘 총 쟁기대회 전남 올 수매가 6만2000~6만3000원 형성...전년비 12% 하락

올해 쌀이 30만t 초과 생산되면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쌀 시장격리’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전국 140개 농협 조합장은 13일 청와대 앞에서 ‘쌀 시장격리 촉구 총 쟁기대회’를 열고 청와대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12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 농협 조합장 140명과 미국종합처리장(RPC) 대표 이사 및 장장 220명 등 360여 명은 13일 청와대 앞에서 ‘쌀 시장격리 촉구 전국 농협 조합장 총 쟁기대회’를 연다.

전남에서는 광주·전남RPC 협의회 소속 농협 조합장 20명과 비RPC 농협 조합장 34명, 광주·전남 RPC 장장 및 대표 21명, 박서홍 농협 전남본부장,

농협 광양·담양·화순지부장, 전남지역 국회의원 등 89명이 동참한다.

이들은 광주에 집결한 뒤 서울로 이동, 이날 오후 2시부터 집회를 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 종로 효자 치안센터부터 경복궁역, 정부종합청사에 이르는 1.5km를 걸으며 가두행진을 벌인다. 집회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음성 이 확인된 자만 대상으로 치러진다.

전남 59명을 포함해 전국 농협 조합장들이 청와대까지 가서 집회를 벌이는 이유는 정부에 ‘2021년 산 쌀 공급과잉물량 정부매입 계획’ 발표를 재촉하기 위해서다.

전남은 올해 6년 만의 쌀 풍년을 맞아 생산량이 전년보다 14.8%(10만1838t) 증가한 78만9650t

— 청원인행동 —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의 조속한 시행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6,820명 ]

카테고리 농·임업 > 쌀 > 쌀 시장격리 >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의 조속한 시행을 청원합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쌀 시장격리’ 청원에는 12일 오후 기준 6800여 명이 동의했다.

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쌀 생산량은 388만1601t으로, 전년보다 10.7%(37만5022t)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측한 2021년산 신곡 수효량은 358만~361만t으로, 수효량과 비교하면 7~8%(27만2000~30만2000t)가 초과생산된 것으로 보

인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현재 쌀 수급상황은 정부매입 발동기준에 적합되지만 농식품부는 미국매입 대책을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쌀 농민 측 설명이다.

올해 전남지역 평균 쌀 수매가(조곡 40kg당) 시세는 6만2000~6만3000원 선으로, 지난해 매입가격에 비해서는 12% 정도 하락한 가격이다. 지난해 평균 수매가는 6만9198원으로 사상 유례 없는 최고가를 기록했다.

정부가 애타는 농심(農心)을 잃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난 1일에는 쌀 정부매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랐다.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의 조속한 시행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현재 68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매년 10월15일 수확기대책 발표를 농업인과 약속했지만,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쌀 생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으로 보장한 수요초과물량에 대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을 올해 안(12월 중)에 시행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제’인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약형직불제도를 도입했다.

변동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쌀값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공약형직불제 도입을 위해 보완적으로 시장격리제를 제시했다.

앞서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 나랏 48t(800kg들이 톤백 60개)을 약박하고 “쌀은 물가를 잡는 도구가 아니다”며 “초과생산된 쌀 30만t을 즉각 시장 격리하라”고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협 전남노동조합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농협 전남노동조합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했다.

농협 노조는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사단법인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와 ‘농업인에게 희망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행사를 마련했다.

사랑의 김장김치는 목포 동민영아원과 장흥, 해남 등 전남 소재 각 시군 농촌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됐다.

안종필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시민과 농민 속에서 함께 어울릴 때 더 크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전남노조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든든한 동행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서홍(맨 오른쪽) 농협 전남본부장과 안종필(오른쪽 두 번째) 농협 전남노동조합 위원장이 취약계층에 전달 김장김치를 싣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 북광주농협, 광주 본촌동에 종합청사 착공

### 로컬푸드직매장 등 2067평 규모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북광주농협이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한 종합청사(조감도)를 착공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북광주농협이 북구 본촌동(759-6번지)에서 종합청사 및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신축 건물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금융점포,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833.96㎡(2067평) 규모로 짓는다.

착공식에는 강형구 농협 광주본부장과 이득희 농협네트웍스 광주전남지사장,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북광주농협은 지난해 상호금융예수금 5000억원과 올해 상호금융대출금 5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상호금융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총자산 규모는 5930억원이다.

구상봉 조합장은 “북광주농협 신축 청사와 로컬푸드 직매장은 앞으로 광주 북구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로 확보와 지역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지난해 분유 984억원 수입...4년 전보다 20% 증가

수출액 1074억원 25% 감소

저출생으로 인해 분유시장은 감소했지만,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배달이유식 시장은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펴낸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는 영유아식의 생산·유통·수출 통계부터 시장·소비경향까지 다양한 내용이 실렸다.

우선 지난해 영유아식 생산액은 2607억원으로, 지난 2016년 3013억원에 비해 13.5% 감소했다.

또 조제분유 수출액은 9090만달러(1074억원)으로 4년 전보다 25.2%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8317만달러(984억원)로 19.7% 증가했다.

조제분유 주요 수출국은 중국(68.3%), 베트남(20.7%), 캄보디아(4.5%), 사우디아라비아(4.0%) 등으로 4개국에 전체 수출액의 97.5%를 차지한다.

올해 영유아식 시장은 ‘프리미엄’과 ‘간편’으로 압축된다.

소비자들은 프리미엄·수제·유기농 이유식을 선호하는 동시에 간편·시판·배달 이유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분유 구매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품질 및 위생 안전(13.0%), 영양성분 권장 섭취량 충족 여부(11.3%), 기능성 성분 함유 여부(11.3%) 순

으로 나타났다. 이유식 구매는 영양성분 권장 섭취량 충족 여부(19.0%), 유기농·국산 원료 사용(18.5%), 위생적인 생산시설·제조과정(14.4%)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 영유아식 시장규모는 지난해 약 688억달러로 2016년 612억달러 대비 12% 성장했다. 오는 2025년에는 약 82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영유아식 시장의 글로벌 경향은 ‘식품 다각화’, 제품 개발 ‘이분화’,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대량 생산을 통해 원가를 낮추는 ‘메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aTF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 113주년 농어촌공사 ‘지속가능한 농어촌’ 선도 포부

올해 창립 113주년을 맞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비대면 기념식을 열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908년 12월8일 전북 옥구 서부수리조합을 설립하며 이날을 창립기념일로 지정해왔다.

공사는 그동안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관리, 농지은행, 지역개발사업 등을 벌여왔다.

올해 3월에는 ‘농어촌애(愛) 그린 가치 2030’을 내건 ESG경영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농어촌 ESG 경영에 돌입했다.

공사는 외부 전문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본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64명으로 구성된 ESG위원회

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전사적으로 발굴한 126개 과제에 대한 심의와 시행관리 등을 맡고 있다.

전국 67개 지구에서 맞춤형 용수개발과 용수공급망을 연계해 용수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했다. 홍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4개 지구의 치수능력 확대사업을 통해 선제적인 재해예방도 했다.

올해 기존 공사가 벌인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57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편(8지구), 인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1지구),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1지구) 등이 있다.

농업기반시설물 1만4314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584지구에서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이 진행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